



건강검진의 생활화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교육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각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관련기관에 이의 적극적 실천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의 밝은 측면을 강조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의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해야하며, 둘째, 학교 보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보건교육과목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셋째로는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화·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고, 건강계몽 책자를 제작해 가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것을 건의했다.

넷째는 대중매체의 역할 제고를 통하여 신문·방송에 의한 보건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중매체의 잘못된 건강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는 식생활 개선 및 건강식품과대광고를 규제하고, 특히 성인병 예방계몽을 위해, 예방과 치료후의 재활측면의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의

보건교육자문위 분과회의서 건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별 공개강좌, 활기

서울지부·노인병·당뇨병 관리등 다뤄

健協 서울지부는 지난 8월. 지역주민 보건 의식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지역별로 실시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실시된 공개강좌의 내용은, 8월 14일 노인병 예방과 관리(의정부 YMCA), 8월 16일 당뇨병의 관리(강동구민 회관) 등이며 강의는 서기홍 전 사무국장이 맡았다.

한편 서울지부는 이 지역별 공개강좌를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산악회 하계 캠프

안면도서

健協 서울지부 산악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서산 안면도에서 하계 캠프를 갖고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졌다.

9월 공개강좌 “심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공개강좌에서 유형준 박사가 “당뇨병 치료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健協 서울시지부는 9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갖는다.

“심장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다양한 심장질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 관리법, 심장질환의 예방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8월 강좌에서는 국립의료원 내과의 유형준 박사가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일상생활 중의 당뇨관리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한편,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어린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어린이 당뇨병 캠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김진규위원 연수차 출국



분회 기술전문위원 겸 홍보자문 및 편집위원인 김진규 서울의대 임상병리과 교수가 미국 신시네티 대학에서 3개월 동안 지질대사에 대한 단기연수를 위해 오는 9월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충북지부 주소변경

청주시 지북동으로

健協 충북지부의 주소가 지난 8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

이번 주소변경은 충청북도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변경 전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지북동 207(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지북리 207)